

제6회 이사회 개최



이사회를 주재하는 오웅석회장

본 협회에서는 지난 7월 14일(수) 오후 2시부터 본협회 대회의실에서 오웅석 회장의 주재로 제6회 이사회와 제3회 연금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협회의 당면한 주요업무보고에 이어 전회 회의록 승인과 부의안건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협의된 부의안건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사회

- 제1호의 안 : 결의문(안)결정의 건

최근 일부 건축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일부언론의 과장왜곡보도와 소수건축인의 집단행동과 관련 우리의 입장과 견해를 정리(이종관이사, 이종만이사와 김영수서울회장에게 위임)한 결의문을 작성, 홍보토록 함.

- 제2호의 안 : 설문조사 실시승인의 건

건설부의 건축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요청에 따른 설문조사 실시 여부에 있어, 설문내용을 협회 의견대로 조정하면 실시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실시하지 않기로 함.

- 제3호의 안 : 94년도 예산편성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위원장 : 이춘상
-부위원장 : 이일윤

-위원 : 김인곤, 송양석, 시도건축사회장 및 건축사회 추대대의원 약간명

- 제4호의 안 :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제2회 한국건축문화대상 지원금 2천만원과 향후 협회 현안에 대한 대외 홍보추진을 위한 홍보선전비 6천만원 등 8천만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하기로 함.

- 제5호의 안 : 직원정년 연장승인의 건

-규정을 수정(단서조항 : 기능직에 한해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3년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후 원안대로 승인함.

연금운영위원회

- 제1호의 안 : 연금운영소위원회 위원 보선의 건

-위원장 : 본협회장

-위원 : 이종관이사, 이춘상이사, 서울건축사회장, 부산건축사회장

- 제2호의 안 : 복지연금 수혜자에 대한 지급 산출기준 변경 및 93년도 물가상승률 반영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제2회 「한국건축문화대상」 본협회 주관 실시

지난해 건설부와 서울경제신문사가 공동으로 우리 고유의 건축문화를 창달하고, 문화유산의 계승 및 궤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한 「한국건축문화대상」이 올해부터는 건설부의 주관 요청에 의해 대한주택공사와 공동으로 본 협회가 행사를 주관하게 됐다.

이 대상은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전국민의 시상제도로

자리잡기 위해 작품제출 서류를 간소화 하였고, 심사위원 전원이 건축물을 직접 찾아가 종합 평가를 하는 현장심사제를 채택,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인간이 중시된 우수건축물을 찾아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모두에게 시상한다.

작품접수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본 협회 홍보부에서 한다.

건축사자격(면허) 1차시험 접수마감

건축사자격(면허)시험이 올해부터 본 협회 주관으로 시행하게 됨에 따라 지난 6월 23일 건축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건축사자격(면허)시험 시행계획을 공고, 7월 4일부터 9일까지 원서접수를 마감, 전국에서 총 5천8백76명이 응시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번 1차시험은 7월 25일(일) 오전 10시부터 동국대학교에서

실시되며, 합격자 발표는 오는 8월 5일 각 시도건축사회 게시판에 공고될 예정이다.

한편, 특별전형시험은 일반전형 2차시험과 동시에 시행되며, 일자와 장소는 별도 각 시도건축사회 게시판에 공고될 예정이다.

자세한 접수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원서 접수					
	계	일반	구조 기술사	시공 기술사	외국 건축사	공무원
계	5,876	5,522	1	50	31	272
서울	3,642	3,474	1	36	30	101
부산	567	539	•	5	1	22
대구	354	327	•	1	•	26
인천	196	178	•	1	•	17
광주	159	148	•	•	•	11
대전	159	138	•	1	•	20
경기	195	171	•	•	•	24
강원	51	40	•	2	•	9
충북	77	74	•	1	•	2
충남	38	35	•	•	•	3
전북	143	126	•	2	•	15
전남	37	32	•	•	•	5
경북	78	72	•	•	•	6
경남	169	157	•	1	•	11
제주	11	11	•	•	•	•

서울, 「'93서울건축사 결의대회」 개최



서울건축사회(회장 김영수)에서는 지난 7월 15일(목) 오후 2시부터 본 협회 대강당에서 서울회원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를 통해 회원들은 건축사 비리 척결과 새로운 제도 정립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 신한국 창조에 장애가 되는 구시대적 유물을 제거하여

건축계의 새로운 풍토를 조성하고, 건축전문인으로서 시대적 역할과 사명을 완수하며, 엄정한 건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결연한 개혁의지를 보여 주었다.

이어서 「신한국 경제와 건축계의 개혁」이라는 주제로 박승전건설부장관의 특별강연이 있었다.

광주, 건축관련 간담회 개최



간담회 광경

광주직할시건축사회(회장 김덕수)에서는 지난 6월 18일(금) 오전 11시부터 광주건축사회관 회의실에서 건축행정 발전을 위한 건축관계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는 광주직할시건축사회의 93년도 사업계획에 의거 실시되었으며, 협회 임원 및 관계공무원 등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행정 현실화 대책 추진 계획 보고 등 토의와 회원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이루어졌다.

건축사 393명 행정처분 기준시달

지난 6월 23일 일부언론에 서울건축사의 절반이 위반 건축사라는 보도는 전체 위반건수 949 건을 건축사수로 확대 왜곡보도 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지난 6월 26일 감사원으로부터 중·대형 건축물 허가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건축사 393명에 대해서는 소속구별로 분류하여 처분기준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 처리도록 조치한 바, 앞으로

감리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건축사는 위법이 발생하는 즉시 행정당국에 보고키로 했다.

이번 위법사례를 분석해 보면, 지난 1년간 전체허가건수의 1.4%에 해당하는 건수로, 발생 건수 중 지하실 과대노출이 24%, 일조권관련이 19%나 되어 현행 건축법이 현실과 동떨어져 지나치게 경직되어 위법사례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 '93 제5차 건축디자인캠프 개최

대전직할시건축사회(회장 임근수)에서는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시소재 대학 건축공학과와 공동으로 제5차 건축디자인캠프를 개최, 산·학협력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캠프는 “도심지 소규모

공공시설／공중화장실”을 주제로 6월 28일 개교를 하여, 마지막날 최종전시와 평가회를 갖는 등 방학을 맞이한 건축학도들이 배움을 실천할 수 있는 한마당이 되었다.

충남, 이갑준회장 건설분과 위원장 피선

이갑준 충남건축사회 회장이 지난 7월 2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있은 충청남도 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건설분과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경남, '93건축사보 교육 실시



건축사보 교육광경

경남건축사회(회장 배동권)에서는 지난 6월 15일(화) 경남건축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관내건축사보 21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93건축행정 전 실화대책 세부추진계획의 일환

으로 실시되었으며, 건축사사무소의 운영 및 관리, 건축행정에 따른 정신교육, 강도설계법에 의한 R/C구조물의 안전규정, 그리고 특수 알루미늄창호와 U.B.R에 관한 실무교육이 있었다.

전남, 경로행사 개최

전남건축사회(회장 김인모)에서는 지난 6월 23, 24일 양일간에 걸쳐 경로효친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원로회원 경로행사를 개최했다.

추대회원 9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전북 순창 강천사를 시발로 유명 사찰과 온천 등지를 유람하며, 식사대접과 기념품 전달로 진행되었다.

제주, 농기계 보내기 성금 기탁

제주도건축사회(회장 김수현)에서는 지난 6월 25일 KBS 제주방송총국에 농기계 보내기 성금(일백만원)을 기탁했다.

이 농기계 보내기 성금 기탁

은 지난 제4회 간사회 결의에 의해 고통분담 자율실천 차원에서 실시되어 제주회원 모두의 온정을 담아 보냈다.

건축학회, 「북한 건축양식」특별강연회 개최

건축학회(회장 송종석)에서는 지난 6월 16일 건축학회 회의실에서 지난해 귀순한 건축가 김영성씨의 '북한의 건축양식들'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열었다.

이 강연회에서 김영성씨는 분단 직후의 러시아 건축양식과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건축양식의 유행, 주체사상 이후 우상화, 신격화의 상징건물의 축조,

남북대결속의 허세와 무용지물의 건축물 등을 설명하며, 북한건축의 낙후성과 무모함을 역설하는 등 남북분단 이후 북한의 건축변천사와 양식들에 대해서 강의하였다.

현재 김영성씨는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고문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위촉연구원으로 재직중이다.

「건설단체장협의회」 발족

지난 7월 2일(금), 건설회관 라칸티나에서 본 협회를 비롯한 건설부 산하 11개 단체장으로 구성된 「건설단체장협의회」가 발족됐다.

협의회는 건설부산하의 각 건설단체의 의견결집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건설환경 변화에 공동협력 대처하여 각 건설단체간의 긴밀한 협력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코자 발족됐다.

이 협의회는 정기적인 모임을 월1회(매월 첫째주 화요일 12시) 갖기로 하고, 건설업 공동발전 방안을 연구·심의하기 위해 학계와 업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지난 9일(금)에는 팔레스호텔에서 이 모임의 공식

출범을 축하, 격려함과 아울러 업계의 공통된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한 건설부장관 초청 건설단체장 조찬간담회가 있었고, 13일(화)에는 대한건설협회 회의실에서 각 단체 기획부장이 참석한 실무회의를 열어 협의회에서 결정된 운영요강 보완 및 기금조성 분담액 결정 등을 협의하였다.

이 협의회 구성 단체는 다음과 같다.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설비공사협회,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대한중기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주택사업공제조합(이상 11개)